

GS건설, 경영실적 기대 못미쳤다!

CJ투자증권, 4/4분기 부진에 영업이익 밀돌아 ... 투자의견은 보유

CJ투자증권은 1월23일 GS건설의 2006년 4/4분기 영업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이라며 <보유>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정동익 애널리스트는 “GS건설의 4/4분기 매출액은 1조7291억원으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847억원으로 당초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10-19% 밀돌았다”고 평가했다.

또 “영업이익률도 2005년 1/4분기 이후 분기단위로는 가장 낮은 4.9%를 기록해 최근의 수익성 개선추세를 이어가는데 실패했다”며 “연말 300%의 상여금 지급과 토목 및 플랜트 부문의 원가율 상승이 경영실적 부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7년 경영목표로 신규수주 10조4400억원, 매출 6조5000억원, 영업이익 4800억원을 제시했다”며 “예상치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2007년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추가 대책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만큼 경영목표치와 실제 달성 가능수치와의 괴리가 조금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가는 1월4일 투자의견 하향조정 이후 6.9% 하락했지만 목표주가 8만2200원 대비 상승여력이 1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1/23>